

멕시코의 방송 및 통신 독점 규제 추진

김희순

멕시코 정부는 2013년 3월 11일, 방송 및 통신 정책을 담당할 신규 기관을 설립하고 거대 방송 및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규제의 핵심은 현재의 독과점 구도를 타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멕시코의 다국적 통신회사인 아메리카 모빌(América Móvil)일 것이다.

아메리카 모빌은 본래 멕시코의 통신회사 텔멕스(Telmex)의 자회사였으나 지난 10여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17개 국가¹⁾ 및 미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통신회사로 성장하였다. 아메리카 모빌의 멕시코 휴대전화 점유율을 70%에 이르고, 유선전화 점유율도 80%에 이른다. 소유자인 카를로스 슬림은 지난 4년 연속 세계 제1의 부호로 이름이 올랐으며, 추정 재산은 약 730억 달러에 이른다.

멕시코에서는 텔멕스와 혼동되기도 하는 아메리카 모빌은 멕시코의 경제 정책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텔멕스는 1947년 스웨덴 통신기업인 에릭슨사의 멕시코지사를 멕시코 자본가들이 인수하면서 설립되었다. 1950년 텔멕스의 소유주들이 미국계 통신회사인 ITT의 멕시코지사를 인수한 이후 텔멕스는 멕시코의 유일한 통신회사가 되었다. 1970년 멕시코 정부가 텔멕스를 구매하면서 텔멕스는 멕시코의 독점적인 국영 통신회사가 되었으나, 살리나스 대통령 취임 초기(1989~1990) 주요

1)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2013년 3월 11일 통신 개혁안 통과를 위해 모인 각료들

기업을 민영화할 때 매각되었다.

멕시코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1982년 이후, 즉 1983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였으나, 미겔 데 라 마드리드 정권(1982~1988)에서는 주로 부실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공기업의 매각은 주로 살리나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루어졌으며, 메히카나, 아에로메히코와 같은 항공사와 구리광산회사인 카나네아 등이 포함되었고, 국립전화회사였던 텔멕스도 매각되었다. 당시 공기업의 총 매각액은 30억 달러에 달하였다. 공기업 매각 과정에서는 외국자본보다는 멕시코 대기업에 우선권을 주었고, 멕시코의 대기업인 비사그룹, 하브레그룹, 카르소그룹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이들 그룹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90년도와 1991년도의 두 차례에 걸쳐 민영화된 텔멕스는 당시 매각된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고, 멕시코의 대기업 카르소그룹(Grupo Carso, 카를로스 슬림 소유)와 미국의 서던 벨, 프랑스의 프랑스케이블 앤 라디오(FCR)에 분할 매각되었다. 텔멕스는 유선 전화를 중심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무선 전화시장에서는 루사셀(Lusacell)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텔멕스는 1995년 멕시코의

경제 위기 당시 루사셀이 고소득 계층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비싼 요금 정책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선불 전화 중심의, 보조금 정책을 동반한 사세 확장 정책을 펼쳤으며, 이후 멕시코 이동통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텔멕스의 자회사 부분에 머물렀던 이동통신 분야는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 아메리카 모빌이 이동통신 분야의 독립회사도 독립하였다.²⁾

아메리카 모빌은 멕시코에서의 통신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의 통신회사를 인수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계 기업인 AT&T 및 Verizon 등의 라틴아메리카 지사 및 지역 지분을 인수하며 중미 및 남아메리카로 적극 진출하고 있고, 미국에도 텔셀 아메리카(Telcel America)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진출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케이블 TV 및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거대 통신회사로 성장하였다.

민영화의 본래 목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및 가격의 인하라 할 수 있으나, 텔멕스 및 아메리카 모빌의 경우 지속적인 통신 설비에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비스 측면의 개선을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멕시코에서는 과거 국영 회사를 대체하는 독과점 기업으로 높은 통신비용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 집권한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독점 규제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인 멕시코의 부호 카를로스 슬림의 부호 순위가 변동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이다.

김희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2) 아메리카 모빌은 텔멕스에서 분리된 이후 텔멕스와 함께 카르소 그룹의 통신 회사인 카르소 글로벌 텔레콤(Carso Global Telecom)의 자회사가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아메리카 모빌은 2010년 모회사였던 카르소 글로벌 텔레콤을 인수하였다.